



◎ 환경관리가 잘 되어 있는 기숙사전경 (좌측 : 여자기숙사, 우측 : 남자기숙사)

부산시 북구 화명동 1170 번지에 소재한 흥아공업유한회사는 정 효택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약 1,500 명의 근로자가 타이어 튜브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1951년 6월에 창설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문에 걸쳐 각종 수상과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산업보건 분야에 있어서 노사협조아래 유해부서 작업환경 개선등으로 근로자 건강증진에 기여도가 큰 우수사업장이다.

◆ 흥아공업유한회사 주요연혁

- 1951년 6월 흥아공업유한회사 창설
- 1965년 7월 7일 KS 표시품 생산
- 1975년 8월 12일 사내 직업훈련소 설립
- 1976년 3월 10일 노사협조 우수사업장으로 대통령 표창
- 1979년 12월 25일 사내 의무실 설립

- 1980년 4월 25일 제 1회 무재해 140만시간 목표달성
- 1981년 2월 2일 제 2회 무재해 140만시간 목표달성
- 1981년 3월 10일 노사협조 우수기업으로 동탑산업훈장 수상
- 1981년 6월 2일 JIS 표시품 생산
- 1981년 6월 17일 교육분야 우수기업으로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 1985년 7월 8일 대한산업안전협회장 표창 수상 및 산업위생 공로표창 수상

◆ 환경개선 동기과 과정

쾌적한 작업환경이라함은 인체에 해를 주는 유해인자를 제거하여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의 오염원인 시설물의 개선과 사용물질에 대

한 사용방법 및 작업방법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모든 시설물이나 방법의 개선에 역점을 두는 것은

가장 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함으로써 명량한 사회를 이룩하며,

건강한 정신과 신체라야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홍아공업(유)는 재산상의 손실은 사람의 힘으로 복구할 수 있으나 인명에 대한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으므로 근원적으로 재해의 요인을 제거해야겠다는 생각하에 1978년 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관련 부서요원들을 안전관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당사 사업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재해요인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해 오고 있다.

재해원인	단기 대책	장기 대책
용 제	○ 작업요령교육 ○ 보호구 착용 ○ 건조대 설치	○ 유독용제 불사용
분 진	○ 집진기설치 및 보호구 착용 ○ 자동계량장치 설치	○ TALC 착탈 CONVEYER 설치
소 음	○ 보호구 착용	○ 시설대체 및 폐기

그리하여 재해요인 제거를 위한 작업환경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감에 있어 먼저 용제에 대해서는 용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교육을 통하여 작업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용제사용자와 비사용자들을 2시간씩 교대작업을 하였으나 이것 역시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

되어 용제사용 작업장에 16대의 밀폐식 건조대를 설치하여 증발하는 용제는 작업장 밖으로 뽑아 내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용제가 흡입되던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였고 당시 기술진의 노력으로 현재는 유해용제인 방향족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분진에 대해서는 분진 발생원마다 집진기를 설치하여 분진을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1982년도에는 분말자동 계량공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홍아공업(유)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분진발생을 줄일 수 있었으며 환경오염의 원흉이었던 카본블랙의 비산을 근원적으로 막았고 현재는 약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TALC 착탈 CONVEYER SYSTEM을 설치중인데 이것이 완성되면 당사업장의 분진은 거의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작업자에게 교육과 홍보를 하여 귀마개를 사용토록 하였으나 귀마개의 성능이 좋지않아 사용자가 오히려 불편만을 느끼고 있어 시설대체 없이는 소음을 줄일 수 없다는 판단아래 소음이 가장 심한 작업장에 최신설비를 대체기로 계획하고 수억원을 들여 2년여의 교체기간이 소요된 1984년에 완성을 보았고 일부품목을 외주하도록 하여 소음설비를 폐기함으로써 소음을 대폭 줄이게 되었다.

사업장내에 안전관리과 신설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시설투자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지만 그에 따른 성과는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 외에도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불량율이 낮아지고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당 사업장에서 그동안 근로자 건강진단 및 유해부서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대책 및 장기대책을 세워 꾸준히 실천해 오으로써 이룩한 성과를 각 사업주와 근로자는 물론 우리 모두 무심히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된다.

(보건관리 이전과 이후)

구 분	이 전	이 후
사 상 결 근 율	0.2 %	0.13 %
공 상 발 생 율	0.12 %	0.02 %
1 일 생 산 량	45 本	74.7 本
건강진단실시결과 유소견자발생율	2.45명/100명	1.98명/100명

◆ 보건관리 책임자로서의 사업주 관리소신

사업장 유해부서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여 산업사회의 기수로 경주하고 있는 흥아공업 (유)의 정효택 대표이사는 소속 근로자의 보건관리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이 관리소신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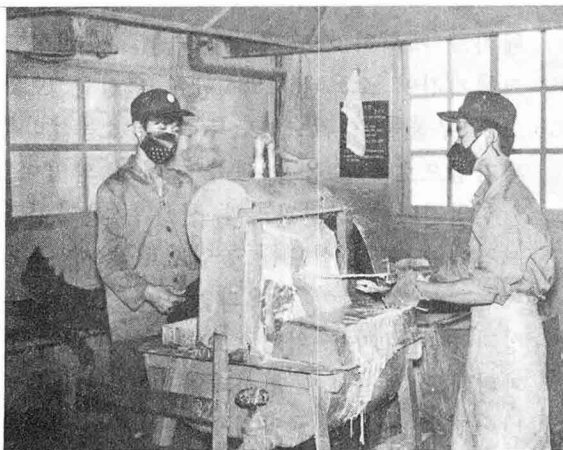
모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가스·증기·분진·소음·폐수 등)은 작업과정에서 작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를 오염시켜 간접적으로도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어패류 식물에까지 침투하여 인류의 생활권을 위협하고 나아가서는 자연환경을 오염시켜 인류의 생존마저도 위협한 단계에 이를 것이다.

인간은 살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인 위생관리 소홀은 소수인원에 불과하지만 집단에서의 소홀은 집단적으로 확산 될 것은 분명하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은 자체정화 또는 외부확산을 사전에 막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직접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공중보건의 이념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작업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모습